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12월 8일(일) 14:00~18:00
 - 2024년 12월 23일(월) 9:40~17:40
- 회의장소
 - (1차)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성훈, 김예림, 문영, 성기숙, 정혜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단계별 지원을 통해 우수 창작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올해의 신작 무용분야 심의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무용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고자 임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원액 상한선이 소폭 상승하여, 2025년 선정작들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서류심의는 심의위원 개별검토 후 논의를 거쳐 채점하였으며, 사전 행정검토에서 탈락된 6건을 제외한 68건 중 고득점 순으로 2차 인터뷰 대상 1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차 인터뷰 심의에서는 안무가, 기획자 등 창·제작진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개별 채점하여 실연심의 대상 11건을 선정했습니다. 11건의 근거는 예산에 따른 최종 선정 목표인 7건의 1.5배수를 준한 것입니다.

두 심의 모두 창작의도와 주제, 그에 따른 구성안과 안무계획 등 '작품성'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었으며, 참여 인력의 역량과 예산의 적절성, 완성작에 대한 유통 및 확산 계획도 주요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필수제출 서류 누락으로 행정결격 된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단체가 결격사유를 파악하여 다음번 지원 시 참고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신청서 검토 결과 올해의 신청작 다수가 환경생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소통 부재나 인간성 상실 등 현대사회의 문제, 전통의 재해석도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동시대 예술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내용들이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웠으며, 지구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성 해석이나 문제의 단순 고발보다는 작가적 해석을 더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수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안무, 연출적 측면에서는 주제에 대한 장기적 연구와 안무가의 창작 논리가 강화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장르 해체의 시도가 눈에 띄었는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포괄하는 무대연출과 무용수의 장르 간 교류가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단순 통합이 아닌 주제의식과 움직임의 상호 관련성 탐구가 전제된 작업, 독창적 연출감각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구현방법에서는 영상사용 계획이 많았는데, 장식적 사용을 넘어 주제와 밀접한 핵심적 연출 도구로 사용되는가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실연심사와 본공연 두 가지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실연심사 예산의 경우 무대세트와 의상 등 본공연 단계에서 완성할 만한 항목보다 수 개월간 창작에 참여하는 안무자, 출연자, 작곡자 등에게 합당한 사례비를 책정한 경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심의 결과 선정된 실연심의 대상 11개 작품은 동일한 제작비를 지원받게 되며, 같은 조건의 무대에서 20분의 실연을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선정된 11개 작품이 계획서에 충실하면서, 완성작의 강점을 압축적으로 표출하기 바라며,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창작의 고민들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